

문화의 장벽을 넘어 문명의 세계로 뉴우기니 출신의 최초의 선교사들



브리즈베인, 오스트레일리아—말일 성도들이 처음으로 아메리카 인디언 종족들과 이야기를 나눈 이래로 교회 선교사들은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곧 극복하게 되는 문제적인 문화적 충격을 겪어야 했다.

로버트 고이시시 장로와 조지 마우이 장로는 새로운 차원에서 문화적 충격을 겪고 있었다. 그들은 400,000평방 킬로미터 이상의 산지와 울창한 산림 지역으로 구성된 태평양 섬 국가인 파푸아 뉴우기니 출신의 최초의 선교사들이다. 그 섬은 적도와 오스트레일리아 최북부 사이에 위치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베인 선교부에

서 봉사하고 있는 이 두 선교사는 생소한 환경과 언어, 풍습 그리고 가치 기준을 접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향수병이 문제일 것이다.

1981년에 개종한 그들은 강한 간증과 많은 결심으로 무장을 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해안 도시인 브리즈베인(인구는 거의 백만 명에 이룸)에 도착했는데 그들은 서구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경험이 없었다. 예를 들면:

—그들 모두가 영어를 적당히 할 수는 있지만 영어는 그들에게 가장 낯설은 언어였다. 고이시시 장로는 6개 국어를 말할 수 있으며, 마우이 장로는 4개 국어를 말할 수 있다.—

-마우이 장로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야 했으며, 침대에서 자는 것, 교통이 복잡한 곳이나 많은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 큰 건물을 보는 것, 또는 '더 추운' 오스트레일리아의 기온 등 모든 것에 익숙치가 않았다.

-뉴우기니에서 그들은 집에 찾아온 방문객을 환영하는 개방적이며 우호적인 관습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의 굳게 잠근 문은 때때로 참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대체로 선교사들은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을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때때로 그들이 그 두 장로들에게 나이를 묻게 될 때 뉴우기니인들은 당혹함을 느끼게 된다. 뉴우기니인들은 그러한 자세한 것들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출생일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권 준비를 손쉽게 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생활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하여 두 사람은 선교부장인 데니스 플레이크 부장의 도움으로 출생일을 선택했다. 그들은 칩레 날짜를 잡고 그때부터 20년 전을 대략 그들의 출생 시기로 잡았다.

두 선교사는 함께 뉴우질랜드 신전을 방문했는데 그들은 그들 지역에서 뉴질랜드 신전을 방문한 세번째와 네번째 사람이었다. 1983년 1월에 바이바 로움 부부가 뉴우질랜드 신전에서 인봉 의식을 받았었다.

플레이크 부장은 이 두 선교사가 빨리 적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공적으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각각 처음 몇 달내에 여러 사람을 침례했으며, 플레이크 부장이 7월에 선교 부장으로서의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할 때, 고이시시 장로는 지

역 관리자(Zone Leader) 봉사하고 있었다.

"적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두 청년의 배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또한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수도인 모즈비 항에서 300킬로미터 서쪽으로 떨어진 오로베이에 있는 마우이 장로의 마을을 찾아갔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몇 가지 토속적인 부족 무용을 보여 주었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계속 멈춰 있는 것 같았으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은 문명이란 것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마을 사람 중의 한 사람이 고도로 세련된 20세기 도시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맺어 주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플레이크 부장은 이 두 장로가 "인정된 복음 교사"가 되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모든 토론을 외우고 약 40개의 성구를 95퍼센트 완전하게 외우는 모든 선교사에게 주어지는 표창장이었다.

뉴기니인들은 또한 다른 선교사들에게도 인기가 좋았다.

"이 사람들과 동반자인 오스트레일리아 및 미국인 선교사들은 그들이 뉴우기니 출신의 최초의 선교사들과 봉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플레이크 부장은 말했다.

"그들은 이 선교사들이 장래 지방부장이며 스테이크 부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와 같이 겸손하지만 영성이 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

상호부조회 창립 142주년 기념 행사 (서울 지역의 각 스테이크)



청운 와드 조영란 지부의 에어로빅



청운 와드 조영란 지부의 가야금 독주 모습

서울 스테이크

서울 스테이크는 지난 3월 17일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청운 와드에서 3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가졌다.

최 옥환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하에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가진 이날 모임은 제 1부에서는 영적인 말씀을 듣고, 2부에서는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정성들여 만든 음식을 나누었으며, 제 3부에서는 각 와드, 지부에서 준비한 장기 자랑과 고전 무용, 에어로빅 댄스, 덤터쿱 제조, 가야금 독주 및 연극 발표가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삼청 와드 상호부조회에서 "친구가 친구에게"라는 창작극을 발표하여 감동을 주었으며 각 와드마다 합창과 시 낭송 등으로 한껏 모임을 빛

내 주었다. 한편 이날 모임의 사회는 서인석 자매, 김 정숙 회장 그리고 박 동자 자매가 맡아 보았다. *

강서 스테이크

3월 17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강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모임은 서울 서 신학 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10개의 와드, 지부가 참여하여 재능을 발표한 이번 행사에서 총출연자가 38명이 되는 "탕자의 비유"를 발표한 화곡 와드가 최우수 상을 받았고 부채춤 등 "민속 무용"을 발표한 공향 지부가 우수상을 받았으며 "솔로몬의 심판"을 뮤지컬로 공연한 신월 지부가 3위 그리고 "민속 탈춤"을 발표한 강서 와드가 4위를 차지하였다.

이날 저녁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준비한 음식을 부페식으로 들었으며 다음 해에는 더욱 알차게 준비할 것을 다짐하였다. *

인천 스테이크

인천 스테이크는 3월 17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인천 스테이크 센터에서 200여 명의 회원들과 구도자들이 참석하여 1부와 2부로 나누어진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진행하였다.

먼저 제 1부에서는 재능 발표회 순으로 현대 무용, 고전 무용 그리고 연극 등을 발표하였으며 제 2부 음식 솜씨 자랑 대회에서는 컵케이크, 김밥, 인절미, 새알떡, 송편, 경단, 야채 빵, 샌드위치 등이 선을 보였다.

이번 행사의 제 1부에서는 주안 와드의 "로버트 오케스트라"가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제 2부에서는 "경단"을 내놓은 부평 와드가 1등 상을 수상하였다. *

서 스테이크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는 3월 17일 오후 4시 30분부터 노랑진 와드에서 김 창선 스테이크 부장이 감리하는 가운데 제1부 예배 순서, 제2부 솜씨 자랑, 제3부 장기 자랑 대회로 나누어서 기념 모임을 가졌다.

제1부에서는 김 창선 스테이크 부장과 조 정환 고등 평의원의 말씀이 있었고 모범 자매 시상식이 있었다.

이번에 모범 자매로 표창을 받은 사당 지부의 이 장순 자매는 가정과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주위 사람들과 교회 회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다. 이어서 제2부와 제3부에서는 자매들이 손수 만든 공예, 수예품들이 전시되었고 각 와드, 지부에서 준비한 반찬과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으며 50세 이상의 자매들도 참여한 흥겨운 장기 자랑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서 으뜸상은 독산 지부, 아차상은 사당 지부, 협동상은 삼도 와드, 그리고 창조상은 봉천 와드가 각각 차지하였다.

사당 지부-탈춤

봉천 와드-연극(제목: "회개의 눈물")

독산 지부-연극(제목: "에스더")

삼도 와드-합창

안양 와드-패션 쇼

시흥 와드-판토마임

노랑진 와드-부채춤

*



연극 장면



연극 장면 모습

동 스테이크

서울 동 스테이크에서는 3월 17일 도봉 와드에서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를 가졌다.

고 원용 스테이크 부장은 기념사를 통하여 상호부조회 창립 목적과 자매들의 교회 활동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2~3주 동안 행사 준비 바빴던 자매들은 이날 그동안 연습한 연극, 무용, 합창 등을 유감없이 발표하였다. 특히 나이 드신 자매님들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여 모임을 더욱 흥겹게 해주었다.

이날 제능 발표회에 참여한 와드, 지부는 다음과 같다.

연극-도봉 와드, 장수 만세-번동 와드, 합창-상계1와드, 하와이 댄스-미아 와드, 교회 소개 및 장수 만세-상계2와드, 자매 중창-삼선 지부

*



반중의 참여한 자매들

서울 동 스테이크 대회



스테이크 대회에서 말하는 고 원용 스테이크 부장

1984년도 전반기 서울 동 스테이크 대회가 4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용두 와드에서 고 원용 스테이크 부장이 감리하는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회 기간 동안 말씀한 연사들은 "복음에 따라 의로운 생활을 할 것"과 "주님과 맺은 성스러운 약속을 굳게 지킬 것"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고 원용 스테이크 부장은 "성도들이 자신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조그마한 유혹에 조심하며 서로 격려하고, 용서하고 영생을 얻기까지 견딜 것"을 강조하였다. 이날 일반 총회에서 도봉 와드 서 정욱 감독이 해임되고 그 후임으로 김 영길 감독이 부름을 받았다. *

청소년 표준의 밤 (서울 동 스테이크)

2월 18일 도봉 와드에서는 스테이크 합동 청소년 모임으로 "표준의 밤"을 가졌다.

이모임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가정과 교

회 그리고 학교에서 맡일성도로서 지켜야 할 표준이 되는 생각과 언행에 대하여 신권 지도자들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특히 김 규태 형제가 발표한 안식일의 일과표와 실제 생활의 일과표를 비교하여 발표한 내용은 흥미있었다. 청소년들은 간증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일과를 되돌아보고 좀더 바른 표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모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 광주 스테이크

광주 스테이크는 3월 17일 오후 3시부터 박 하천 스테이크 부장이 감리하는 가운데 스테이크 센터에서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를 가졌다.

무용, 연극, 중창 그리고 풍트 등으로 엮여진 이날 발표회에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을 발표한 "농성 와드가 최우수 상"을 받았다. 한편 알뜰 바자회에서는 많은 의류와 가구 등이 출품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들에게 판매되었으며 자매들이 준비한 다양한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한때를 가졌다. *

활동에 참여한 자매들

